

충청권 - 도시 개발과 교통 인프라 확충이 핵심

성 유 경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sungyk@cerik.re.kr

충청권은 2014년 신행정수도로의 이전이 완료되면서 위상이 부상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인구가 증가하면서 교통망이 확충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타 지역은 인구 감소의 문제를 안고 있으나, 충청권 인구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충청권 경제 성장률도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지역 소득(잠정)에서 지역별 경제 성장률은 충북(7.4%)과 충남(5.3%)이 1, 2위 순위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지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교해볼 때 약화되고 있는 지방의 위상은 충청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이에, 충청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성장 동력이 될 산업의 육성과 낙후 지역의 개발, 인프라 확충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충청권의 성장 동력으로서의 핵심 산업들은 최근

(2014. 12) 발표된 지역발전5개년계획(2014~2018)에 제시되어 있다. 지역발전5개년계획은 지역별로 특화 발전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는데, 충북은 바이오밸리와 침북단지, 충남은 디스플레이산업, 대전은 국방ICT융합산업, 세종시는 국가 중추 도시이자 신행정도시로 계획되었다.

충청도 지역 개발의 핵심 이슈는 신행정수도의 이전이라 할 수 있다. 행정수도 이전과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에 힘입어 충청권에서는 도시 개발과 그에 따른 교통망 확충 등의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충청권은 예전부터 수도권과 영남, 호남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로서 지리적 이점을 가져왔으며, 앞으로의 지역 개발에서도 교통망 확충은 중요한 사항으로 다뤄지고 있다.

충청권 인프라 확충의 핵심 사업으로는 논산, 대전, 세종, 청주를 연계하여 4개 거점 도시간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사업이 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은 조기 건설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1단계 사업(대전 신탄진~충남 계룡 구간)의 경제성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예비 타당성 조사의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그 밖에 충청 내륙고속화도로, 중부내륙철도 건설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충남은 서해안 항만 중심의 인프라 구축, 충북은 청주국제공항 중심의 교통망 연계,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각 지역별로 특색화된 핵심 숙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충청북도

지역별 핵심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충북은 세종시-충북혁신도시-충주기업도시-충북경제자유구역의 연계 개발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 측면에서는 바이오산업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그 밖에도 충북종합계획(2011~20)에서는 오송 바이오밸리, 솔라밸리, 첨단IT밸리, 항공MRO사업 육성 등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계획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계획된 사업들 중에는 시장 환경 변화, 자원 부족 등으로 추진력을 잃는 경우도 많다. 기존 오송생명과학단지의 활성화, 첨단 의료복합단지 투자 유치, 제2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등의 내용으로 추진되는 오송 바이오밸리 사업은 이번 지역발전5개년계획에 포함되어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솔라밸리로 명칭되는 태양광 산업 지역인 증평 솔라시티와 솔라크린시티(충북혁신도시) 같은 경우, 후발 주자인 중국과의 치열한 경

쟁이 변수가 되고 있으며, 항공MRO사업 역시 '사천 MRO 클러스터'와 경쟁하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충북 신발전지역 사업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등 도시 개발 및 재생 사업들은 자원 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오송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2005년부터 충북도에서 추진해 왔으나 분리 추진, 규모 축소 등을 거치며 2013년 도시개발 구역 지정에서 해제되었다. 하지만 최근 지역 주민들의 주도하에 환지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준비되고 있다.

충청남도

충청남도는 중국과의 국제 교류를 위한 서해안권 발전 지역으로 주목받아 왔으며, 환황해권 시대의 선도와 첨단 산업 벨트 구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해 왔다. 충청남도의 핵심 지역 사업으로는 내포신도시 조성 사업이 있다. 도청과 유관기관 이전, 행정타운을 개발하는 내포신도시 1단계 사업은 2013년 완료되었으며, 주택, 학교, 환경·에너지 등의 공공 시설과 민간 편의시설을 건설하는 2단계(2014~15)와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산업용지 개발 건설 등의 3단계(2016~20) 사업이 남아 있다. 또한 신도시 주변 지역의 교통망 구축을 위한 사업들도 함께 추진되고 있어 내포신도시의 개발로 인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충남종합계획(2012~20)에서는 4대 전략 산업(디스플레이, 자동차·IT융합산업, 첨단 문화, 농축바이오산업) 육성을 제시하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의 연계 협력사업, 국방과학 클러스터, 대항해권 디스플레이 메가 클러스터 등의 조성 계획을

특집 지역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살리기

세웠다. 이 중 디스플레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은 지역발전5개년계획에서 특화 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활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타 사업들은 추진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은 거점 도시인 대전을 중심으로 기능 도시인 충남 천안, 충북 청주, 세종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사업이다. 하지만 현재 거점 도시 조성이 늦어지고 있으며, 기능 도시들의 역할과 기능도 모호하다. 또한 현행법상의 개발 기능 부재, 사업화를 위한 역할 한계 등이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17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국방과학산업 융합 벨트 조성도 추진력을 잃어가는 상황이다. 충남증장기 통합계획에서는 천안(국방과학 산업지구), 공주(국방 R&D 융합지구), 논산(국방인력 창조지구), 계룡(국방문화 체험지구)에 1조원 가량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국가 계획 및 재원 마련은 준비되지 않았다.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국가 차원의 장기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이 없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업은 유적 정비·복원, 도시 경관 및 역사 테마거리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1조 2,000억여원 규모의 사업이다.

대전광역시

대전시는 내포신도시로의 충남도청 이전, 청주국제공항, 세종시 개발 등 인근 도시의 발전에 따라 위상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대전시의 지역 경제 성장률에서도 나타나는데, 충북과 충남이 높은 성장률을 보였음에도 대전시의 지역 경

제 성장률(1.4%)은 전국 평균(2.7%)보다도 낮았다. 이에 대전시는 상황 타개를 위해 국제과학도시, 문화도시를 추구하며 주변 도시와의 연계를 통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발전5개년계획(2014~18)에서는 대전시의 특화 발전 프로젝트로 국방산업단지 조성, 국방ICT융합산업 육성이 계획되어 국방산업 분야로의 성장도 기대되고 있다. 대전의 도시재생 사업은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실질적인 추진이 어려웠으며, 이에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계획으로 재정비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을 세웠다. 충남도 청사의 이전에 따른 도청 부지 활용도 당면 과제인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이다. 다만, 최근(2014. 12)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옛 도청 부지에 대한 국가 매입(800억원)이 결정되어, 충남도청 부지의 활용 및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 인프라로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추진 중이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일찍이 2001년부터 광역교통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기본계획 재검토, 예비 타당성 조사의 낮은 경제성 평가, 충청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인한 노선 계획 변경 등으로 추진이 늦춰져 왔다. 최근(2014. 12)에는 고가 방식 자기부상열차에서 노면 방식 트램으로 기종과 건설 방식이 변경되며, 사업 계획과 설계의 재검토가 불가피해졌고, 이로 인한 착수 지연이 예상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는 중앙 행정 부처 및 국책 기관들의 이전

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이후로는 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교통·물류망, 생활 기반 인프라, 첨단 기업 유치로 지역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세종시의 핵심 지역개발 사업으로는 민선6기 시정 공약 중 하나인 '인구 10만 청춘 조치원 건설'이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세종시는 구도심권 미개발지의 신시가지 조성(5,250억원), 조치원 동서연결 교통 확충(1,700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원 부족 걸림돌 극복해야

도시 개발 및 정비, 교통 확충 등의 인프라 사업의 경우 필요한 대규모 자본은 국비, 지방비에서 투자되기 때문에 중앙 정부와 지방 재정의 여력이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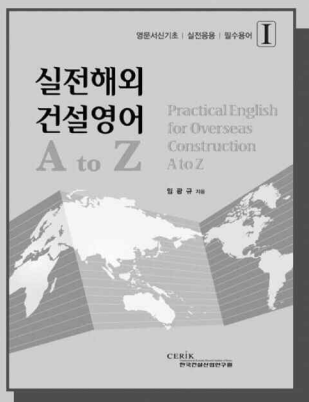
한 상황에서는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또한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산업 기반시설 건설 역시 명확한 추진 주체와 자본이 뒷받침되지 못한 경우 사업 규모의 축소, 기능 변경 등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충청권의 경우 지역 경제 성장률 증가, 인구 유입 등의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2014년의 지방 재정 자립도는 충북 26.6%, 충남 30.2%로 전국 평균(44.8%)에 크게 못 미쳤다.

거시경제 전망까지 어두운 현 환경 속에서 핵심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충청권의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 부족이라는 걸림돌을 뛰어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CERIK

도 · 서 · 안 · 내

실전해외건설영어 / 임광규 지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펴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국내 건설기업의 글로벌 건설 인력 양성을 통한 국제 건설시장 진출과 프로젝트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총 5권의 「실전해외건설영어」 출간을 기획하고 이 중 제1권을 발간하였다.

「실전해외건설영어」은 영문 서신 작성의 기초부터 해외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던 400여 건의 영문 서신 사례를 편집, 주석을 달았다.